

남자 한복바지구성의 상징성 연구 - 圖式을 중심으로 -

정 옥 임 · 김 경 희*[†]
조선대학교 교수 · 원광대학교 강사*[†]

A Study of Symbolism in the Composition of Korean Men's Trousers Interpreted with Figures

Ok-Im Jung and Kyung-Hee Kim*[†]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Clothing, Wonkang University

(2002. 7. 9. 접수 : 2003. 5. 31. 채택)

Abstract

When analyzing forms in the human body and clothes, we conceptualize each part into a cone, sphere, and cylinder, and the esthetic characteristics of our fashion culture and esthetic fashion characteristics of Koreans are composed by expressing with universal images such as circle, square, and triangle when forms are expressed in a plane. To determine how the structural principle of shapes that are the shapes of all things and basic to geometry, i.e., circle, square, and triangle, applies to clothes that cloth our body called the small cosmos, we discussed the symbolic meaning hidden inside the structure of Korean clothes based on the basic pattern drafting method of Korean men's traditional trousers. We drew the conclusion that Korean men's trousers composed of circles, triangles, and squares express the five elements diagram through their plane structure, are designed in circles with cones and pyramids, and are made to well express the principle of the small cosmos of our body. Moreover, when the basic pattern of Korean men's trousers explained with the antipathy diagram is viewed to create all things while maintaining opposit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Sangsang* (mutually benefitting factor), it would be correct to say that the principle of the top verse the bottom is viewed as conflicting. From the structural point of view, since the philosophy of the *Samsu* principle (the principle of 1, 2 and 3 in which 1 represents the heaven, 2 represents the earth, and 3 represents the people) is hidden in Korean men's trousers in which *Hurimalgi* (the part of trousers corresponding to the waist band of Western pants) is the circle representing the heaven, *Marupok* is the square representing the earth, and *Sapok* is the triangle representing the people, we could look at deep meaning of our ancestors expressed in our clothes.

Key words : composition(구성), interpreted with figure(도식), Korean men's trouser(한복바지).

* 본 논문은 2002년도 조선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 E-mail : stonekhee@hanmail.net

I. 서론

의복의 기능에서 표현적 기능은 비언어적이지만 언어와 같은 특정한 의미가 내포된다. 이것을 우리는 상징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형태도 없고 가시적이지도 않으면서 대상을 보면 무엇인가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방법이다.

의복에서 나타나는 상징은 의복의 형태나 색채, 문양에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들에게서 읽을 수 있는 상징은 신분이나 계급, 사회, 경제적 지위나 교양, 기분상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의미전달의 발생적 지저에서 보이는 모든 대상들 중에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인간의 오감에 미치는 범위 내로 끌어들여 일체감을 얻고자 하는 비언어적 감각적 표현양식이 있는 반면 존재의 의미를 형상으로 표현하여 하나의 의미만을 전승하는 기호로서의 상징도 있다. 의복에서의 기호학은 실재성을 보이기보다는 이미지를 보여준다¹⁾. 이것이 동양에서는 자연관을 중심으로 한 미적 인식으로 되어 생활 속에 깊게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을 우주의 축소판으로 보고 인체 자체가 천지, 음양, 오행의 이치를 갖춘 소우주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닌 하나로써 합일되는 미를 추구하게 되어 대상의 표현에서도 내용과 형식을 이분화시키지 않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것을 인간생활의 근본으로 삼아 우리의 생활규범 속에서 전통적 미의식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 한 예가 우리고유의 의복으로 의복의 형태, 색채, 문양은 물론 구성의 원리에서도 그 내포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의복은 단지 입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철학적 정신세계가 의생활을 통해 우리 민족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²⁾ 그것은 고대로부

터 자연의 천리로 지켜온 음양오행설이나 풍수지리설이 복식의 형태와 색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³⁾도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여 자연 속에 포섭되고 자연과 합일하여 자연과 하나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복은 몸에 걸치는 것 이상의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환경의 모든 물체에 나타나는 조형의 시각적 느낌은 모두가 다 곡선과 직선이 상호 어울려 조화하는 데서 비롯되었음⁴⁾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인체와 의복에서 형태를 분석할 때 우리는 부분들을 원뿔, 구(球), 원통(圓筒)과 같은 3차원으로 개념화⁵⁾하고 평면으로 표현될 때는 원, 방(方), 각(角)이라는 우주적 이미지⁶⁾를 표현함으로써 우리 복식문화의 미적 특성과 한국인 특유의 미의식을 구성하게 되었다. 즉 수(數)의 법이 원과 방에서 나오고, 원은 방에서 나오고 방은 구(矩=曲尺)에서 나오고 구(矩)는 다시 만물에서 나온다고 하여 원, 방, 각 이 세 가지 상(象)은 만상(萬象)의 꼴을 상징화 한다⁷⁾고 보았다.

본 연구는 만상의 꼴이고 기하학의 기본 도형이 되는 원, 방, 각이 우리 옷의 구성원리에 어떻게 적용되어 소우주라고 하는 인체에 입혀지는 의복으로 나타나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⁸⁾를 바탕으로 우리 옷의 구성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원리를 음양오행으로 풀어 봄으로써 다른 나라의 구성법에서는 볼 수 없는 상징적 의미와 정신 문화적 가치를 고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문화 속에 내재된 어떤 상징성 사립도 또한 신체적이고, 현상적이라는 점에서는 만물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간은 모든 점에서 작은 우주⁹⁾라고 보는 관점에서의 우주적 이미지가 深衣의 상징성에서와 같이 바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소우주인 인체

1) 한명숙 옮김, *유행과 문자 의상체계*, (서울 : 경춘사, 1996), p.7.

2) 배영자, *한국의 복식* (서울 : 경춘사, 1998), p.455.

3) 금기숙, "조선 복식의 탐구", *복식* 3권 14호 (1990), p.177.

4) 박규현 외, *조형론* (서울 : 技文堂, 1984), p.39.

5) 이화연 외, *복식의 시각디자인* (서울 : 경춘사, 1996), p.99.

6) 安原田, *동양철학 이렇게 한다* (서울 : 대원출판사, 1994), p.261.

7) 정혜경, 권영숙, "역을 통하여 본 심의의 상징성", *복식* 4권 제16호(1991), p.77.

8) 정옥임, "한복바지 구성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9호, (2001), pp.97-107.

9) 여동빈, *태을 금화종지* (서울 : 여강출판사, 1992), p.199.

가 걸치는 의복의 한종류인 바지의 구성원리를 우주
의 상징성인 圓과 땅의 상징성인 方, 그리고 인간을
상징하는 角으로 圖式化 하여 이를 우리의 생활철학
인 陰陽五行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성
설계가 인간의 내면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상징
성을 내포한 원리로 구성되었음을 밝힌다면 우리 옷
에 대한 정신 문화적 가치는 보다 크리라 생각된다.

II. 남자 한복바지 구성의 특징

1. 한복바지 원형 구성에 내재된 조건

다른 옷들과는 달리 한복바지는 형태에 큰 변화
없이 존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형태에 변화가 없
었다는 것은 구성자체에 변화를 받아드려 적용시킬
부분이 없었거나 구성자체가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
우리 민족의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
다.

한복바지 구성형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장방형의
마루폭과 삼각형을 이루는 사폭, 弧를 이루는 까마
귀머리를 들 수 있고 원형구성에서의 특징은 좌우대
칭인 구성방법이 아니고 앞뒤 대칭이라는 점과 인체
의 正中線에서 벗어나 큰 사폭과 작은 사폭을 병합
하고 다시 마루폭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선과 면적에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지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병합 선에 가해지는 힘의 분산까지도 얻게 되는 효
과를 낳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밑 위 중심을 사선이
되도록 배치한 구성방법은 좌식 생활에서의 동작적
응에 순응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
성형태 즉, 마루폭과 사폭을 연결하여 구성한다거나
큰 사폭과 작은 사폭을 따로 마름질하지 않고 연이
어 마름질할 수 있는 구성방법이 유지되도록 구성한
이유에는 옷감의 폭이 제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
인다. 이것은 인체의 형태에만 기준을 두고 구성된
서양의복 구성법과는 달리 한복바지는 인체에 입혀
지지만 입힐 의복을 만들 재료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성된 바지원형이라는 점에서 서양의복 원형제도
법과는 다르다. 다시 말하면 한복바지의 원형구성

제도 법은 옷감 폭에 따른 구성방법으로 옷감 폭 이
내에서 마름질할 수 있도록 구성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옷감의 폭은 직기에 따라 결정되나 직물의
용도 관례상 정해진 것이 있다. 오늘날의 옷감 폭은
다양하여 옷의 마름질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옛날 度量衡은 天道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다. 一이 二를 낳고 二가 三을 낳으며 三은 만물
을 만든다. 三으로서 만물에 참여시키므로 3을 3배
하면 9다. 物은 3으로서 生하므로 $3 \times 9 = 27$, 布의 폭
은 二尺 七寸이다¹⁰⁾라고 하였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져 온 척도의 단위는 인체로부터 비롯된 것
이 많다. 尺의 기원은 손의 너비로 고대 중국에서 시
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2.21cm로 써왔으나 한
일합방 후에 33.33cm로 되었다¹¹⁾. 이렇게 볼 때 布의
폭 二尺 七寸은 약 87cm~90cm에 해당하는 넓은 폭
으로 오늘날의 1마(야아드)에 근사한 값이라고 하겠
다. 그러나 현재에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 안동포나
보성 삼베, 명주에서 볼 수 있는 布의 폭을 기준으로
해보면 새(升)가 많은 경우는 30cm폭이나 대개는
33cm~36cm가 보편적이다. 통일신라 때까지 麻布,
苧布는 문헌상 20升布가 제작된 기록이 있는데 이때
의 20升布는 布幅이 35cm여가 되므로 통일신라의
50cm 布幅¹²⁾이라고 한 것을 보면 넓은 폭의 옷감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조선시대의 大綴의 廣이
一尺 三寸으로 되어 있다¹³⁾는 것을 보면 오늘날의 小
幅직물이 옛날부터 연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무엇보다 소폭직물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가
정에서 사용하는 베를이 부녀자가 다룰 수 있는 크
기, 다시 말해서 날실에 바디를 이용하여 씨실을 좌
우로 보내야 할 때 베를 짜는 사람의 어깨 폭과 팔
길이가 관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인간
이 사용해야 하는 기물은 사용해야 하는 인간을 기
준으로 만들기 때문이며 소우주라고 하는 인간은 天
道로부터 나왔다는 度量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복바지의 치수는 현행의 바지치수와 별 차이가 없어
조선말기의 바지와 현행의 바지는 같다고 할 수 있
다. 이로 미루어 바지의 폭이 예나 지금이나 같다고

10) 이석호, *이남자* (서울 : 을유문화사, 天文訓, 1996), p.145.

11) 중앙일보사, "중앙대백과" (1985), p.1519.

12) 민길자, "한국 전통문직물의 조직에 대한 고찰", 국민대 교육 논총, 10권 제 1호 (1990), p. 101.

13) 민길자, " 한국 전통 문직물의 조직에 대한 고찰 IV " 국민대학교 생활환경연구소, 제1집 (1995), p.14.

볼 때 옷의 제도와 마름질은 최소 폭으로 바지의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게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小幅인 경우 布幅이 33cm~36cm라면 옷의 구성형태는 이 옷감 폭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 범위 내에서 봉합선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미적인 측면까지도 고려된 구성 방법이 오늘날의 바지형태로 정착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2. 한복바지 원형의 설계기준

인체는 기하학적 형태들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 의복에서 이 기하학적인 형이나 형태들은 거의 순수하지는 않으나 복식분석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히 근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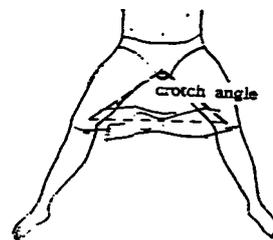
형이란 단어는 보통 기하학적인 형의 이미지를 불러 일으키며 실제로 인체와 복식을 구성하는 것은 기하학적인 형이나 형태 및 이들의 변형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2차원과 3차원의 형과 형태를 다 사용하여 상호작용해야 한다. 선행연구¹⁴⁾에서도 밝혔지만 의복원형 설계에서 그 구성설계의 근간은 인체가 중심이 되며 인체를 기저로 해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형태는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함은 당연하지만 한복바지에서의 설계근간은 우리 전통 옷감의 폭과 우리의 좌식 생활문화가 고려되어 의복원형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복에서 우주적 공간의 상징은 인류의 창조이래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유리되고 소외되고 있음을 되돌리려는 의도¹⁵⁾로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여 포섭되고 그와 합쳐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복바지의 구성원리가 이 圓, 方, 角의 형태를 취했음에도 현재까지의 제도법에서는 바지길이와 엉덩이둘레만을 이용하여 좌우균형에 의한 구성설계를 취한 결과로 이에 대한 해득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생활습관 즉 東洋은 陽이므로 지구인陰과 가까이 하기 위해 바닥에 붙어서 생활하는 온돌문화가 발달한¹⁶⁾ 생활형태에서의 온돌 좌식은 바지

설계에 밀각이 고려되어 바지형태를 구성하는데 핵심항목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마름질은 옷감 폭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형구성도 小幅의 옷감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며 또 인체와 기능성에서는 좌식 생활문화에서의 앉은 자세가 바지의 구성설계에 적용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구성설계에는 앉은 자세에서 얻어진 밀각이 적용되어야 한다. 앉은 자세란 척추를 곧게 하고 좌우무릎관절과 머리가 삼각형을 이루며 하퇴가 양 무릎을 향해 대퇴를 받히고 치골 중심점과 좌우 내측 무릎 관절점과 각도를 이루면서 인위적이거나 앉은 편한 자세이다. 그러나 앉은 자세에서의 밀각측정은 다리를 포개는 정도에 따라 오차가 크므로 서서 다리를 자연스럽게 벌렸을 때의 밀각과 누워서 다리를 자연스럽게 벌렸을 때의 밀각이 생활 자세의 基本 角이 되어 평균한 값을 바지설계의 밀각으로 적용했을 때 밀각은 72° 이었다. 모든 측정은 관련된 신체부분들이 대부분 일상생활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¹⁷⁾ 바지 구성설계를 위한 밀각에서의 각도측정은 원칙적으로 관절에 의해 연결된 신체부위의 내부에서 가상의 축 선을 가정한 다음 각도는 이 두개 축 선의 교차점에 대해 측정한다¹⁸⁾.

<그림 1>은 바지의 밀각측정을 위한 자세이고, <그림 2>는 엉덩이둘레에 키와 밀각을 적용하여 설계된 바지원형이며, <그림 3>은 완성된 바지원형이다. 그리고 <그림 4> ~ <그림 6>은 바지의 구성형태를 좌우 측면에서 관찰해 본 것인데, <그림 4>는



<그림 1> 한복바지원형설계를 위한 밀각측정자세.

14) 정옥임, "한복바지 구성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9호, (2001), pp.97-107.

15) 채금석, *현대 복식 미학* (서울 : 경춘사, 1995), p.72.

16) 安原田, *Op cit.* p.261.

17) 조암, *인간 공학실험* (서울 : 녹원출판사, 1994), p.493.

18) 조암, *Ibid.*, p.493.

구성의 내부 선을 생략하고 바지의 외곽선 형태만을 나타낸 것으로 육각형 형태이다. 이것으로 살펴보면 한복바지의 평면구성에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 3차원적 구성에는 원뿔과 사각원뿔이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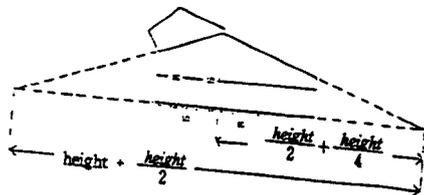
3. 한복바지 구성에 내재된 원리 및 상징성

서양에서도 형태에 대한 상징성은 있지만 사물을 투영하는 시각이 동양과는 다르다. 서양에서 5의 이미지인 오각형은 창조적 사랑과 동시에 영혼의 물질 세계로의 투영이며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대 원칙의 반영인 인간육체의 균형을 의미하고¹⁹⁾, 솔로몬의 卍이라고 불리는 육각형 도안은 다윗의 별이라고도 하여 형평과 조화를 상징한다²⁰⁾. 반면에 동양에서의 오각형은 水, 火, 木, 金, 土인 五行을, 육각형은 天地四方을 상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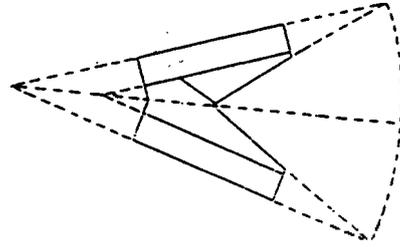
天地人物이 비록 각각 그 理가 있으나 天地의 理가 곧 萬物의 理요, 萬物의 理가 곧 人의 理니 이것이 이른바 모두 一太極이다²¹⁾.

옛사람들은 하늘은 陽, 땅은 陰氣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여 陽은 하늘의 모양인 圓으로 나타내고 陰은 땅의 모양인 方으로 표시했다. 의복을 또한 옷깃과 아래옷으로 나누어 만든 것은 陽上과 陰下의 원리를 따른 것이며 上衣의 몸통을 하나로 하고 下衣의 가랑이를 둘로 나눈 것은 陽一, 陰二의 수처에 의한 것이다. 즉 바지와 저고리는 태극 속의 음양을 상징하고 띠는 우주의 중심을 회전하는 赤道²²⁾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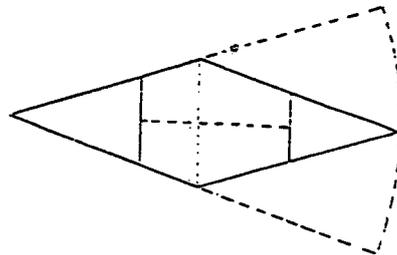
〈그림 2〉에서 바지의 밑각은 72°(36°)였다. 이 각은 五角形의 內角을 말하고 오각형을 만드는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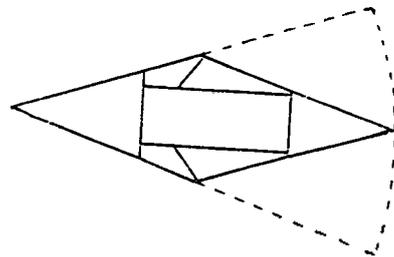
〈그림 2〉 한복바지원형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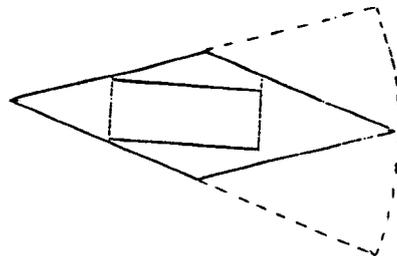
〈그림 3〉 한복바지 구성의 형태.



〈그림 4〉 내부 선을 생략한 측면형태의 바지.



〈그림 5〉 측면에서 본 마루폭과 작은사폭, 사폭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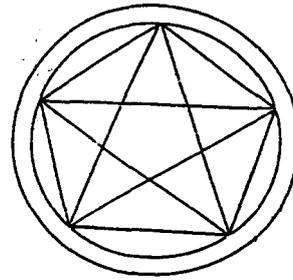
〈그림 6〉 측면에서 본 마루폭과 큰사폭.

19) 김정란역, 상징 기호, 표식 (서울 : 열화당, 1987), p.156.
 20) 김정란, Ibid., p.156.
 21) 정중하, 율곡집 (서울 : 대영서적, 1976), p.19.
 22) 권오호, 우리나라와 음양오행 (서울 : 교보문고, 1997), p.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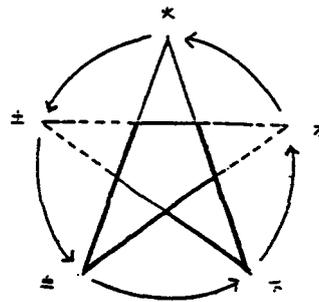
형태의 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五角形속의 별 형태와 圓속의 五角形 별²³⁾을 <그림 7>로 나타냈는데, 圓方각도는 삼각형과 사각형을 운용하여 원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루어진다²⁴⁾고 보기 때문에 圓속의 별은 五行을 의미한다. 별의 오각을 연결하여 그려진 원은 五行법칙에 의한 우주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고 별을 이루는 垂線끼리는 相廻원리로 설명된다. <그림 8>는 陰陽五行으로 본 바지형태와 相生相廻圖인데 <그림 3>의 바지원형 제도형태와 비교해 보면 아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6세기 Aglipha의 '신비철학'에 圖示된 "오각형 별 모양으로 그려진 소우주인간"²⁵⁾이란 제목의 그림은 본 연구의 바지설계와 너무도 유사하다 <그림 9>. 이는 인체가 소우주이며 우주의 법칙인 五行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의 한복바지는 구성형태에 있어 이와 같이 인체와 의복이 天理에 합일되는 철학적 원리를 내포하고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림 8>에서 보면 바지원형이 相生관계가 아닌 相廻관계로 설계되어 있는데 萬物의 생성원리를 따져보면 廻를 받지 않고서는 만물이 길러질 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 즉 天地生物之正과 養神之道도 廻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²⁶⁾. 즉 상극작용은 상생작용의 반대작용을 함으로써 生을 견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天道의 운행은 그 목적이 생성에 있는 것이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양극을 보호할 수 있는 陰形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음형은 이와 같은 중요한 목적을 수행하는 반면에 陽과는 서로 원수와 같은 관계에 있다²⁷⁾. 즉 상생과 상극, 음과 양은 서로 필요 불가결한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행의 상극원리란 것은 生成작용의 裏面을 표시한 것이다. 삶은 바로 음과 양이 고투 섞인 조화²⁸⁾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한복바지에는 이와 같은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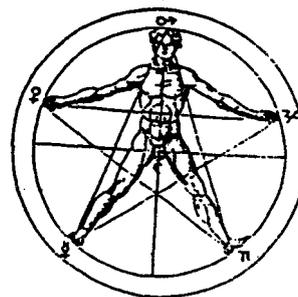
림 10>은 바지원형 구성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원 속에 앞 뒤판 10면의 바지형태가 圓을 이루고 있다.



<그림 7> 원과 오각형과 별.



<그림 8> 상생상극도와 바지형태.



<그림 9> 오각형 별모양으로 그려진 소우주인간-아그리파, 「신비철학」.

23) 김정란, *Op cit.*, p.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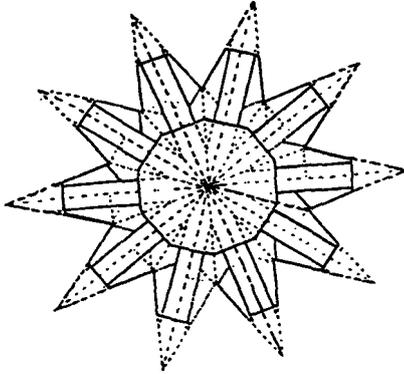
24) 조하선, *배일 벗은 원부경* (서울 : 물병자리, 2000), p.57.

25) 김정란, *Op cit.* p.156.

26) 한동석, *우주의 변화원리* (서울 : 내원출판사, 2001), p.112.

27) 한동석, *Ibid.*, p.112.

28) 박규현, *조형론* (서울 : 기문당, 1984), p.39.



〈그림 10〉 바지원형과 도식화 구성도.

五行圖이다. 원방 각도는 중심점으로부터 圓柱와 만나는 도형의 접점을 연결하여 분석해 보면 10개의 분할 면이 생김을 알 수 있다. 중심과 원주는 서로 음양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중심으로부터 원주와의 접점을 연결시켰을 때 변화하는 도형의 구조에는 형이상학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의미가 담기게 되는 것이다²⁹⁾. 蓋天數終於九 地數繙於十³⁰⁾고 하는 것처럼 지수에 해당하는 바지는 당연 아래웃으로 음에 해당한다. 그리고 바지길이설계와 엉덩이나비설계가 이루는 작은 밑각의 1/2인 36° 가 되는데 이는 天經을 나타내는 地平 子午線에서 북극성과 수선을 잇게 되면 북극을 나타내고 이와 대칭이 되는 곳이 남극이 되어 이를 出地 36° , 入地 36° 라고 한다. 즉 大 三 合 六 ($6 \times 6 = 36^\circ$)은 一 積 十 鉅 無 ($36 \times 10 = 360^\circ$)이다³¹⁾. 天球를 표현함이다.

원은 시작도 끝도 없으므로 해서 영원과 전체성의 사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한복바지는 그 구성원리에 천리를 담고 있다.

Ⅲ. 결 론

의복에서의 상징성은 실제성을 보이기보다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동양에서는 자연관을 중심으로 한 미적 인식으로 되어 생활 속에 깊게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을 우주의 축소판

으로 보고 인간 자체가 천지, 음양, 오행의 이치를 갖춘 소우주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닌 하나로써 합일되는 미를 추구하게 되어 대상의 표현에서도 내용과 형식을 이분화 시키지 않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것을 인간 생활의 근본으로 삼아 우리의 생활 규범 속에서 전통적 미의식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 한 예가 우리의 한복바지로 구성원리에서 그 내포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한복바지의 평면구성에는 圓, 方, 角이 3차원적 구성으로 원뿔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만상의 풀이고 기하학의 기본 도형이 되는 원, 방, 각이 우리 옷의 구성원리에 어떻게 적용되어 소우주라고 하는 인체에 입혀지는 의복으로 나타나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바지 원형 제도 법을 바탕으로 우리 옷의 내재되어 있는 상징적 의미를 고찰해 본 결과 한복바지 원형설계는 五行圖로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하학의 기본 도형이고 天, 地, 人을 상징하는 圓, 方, 角은 우주적 이미지 표현으로써 의복을 단지 입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합일하려는 철학적 정신세계가 내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행도로 설명되는 바지원형 相生이라는 원과 상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물을 생성시킨다고 볼 때 上陽(上衣)에 대응한 下陰(下衣)의 원리로서 만물을 생성시키는 陰陽의 이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허리말기는 天을 뜻하는 圓이고 마루폭은 地를 나타내는 方, 사쪽은 人을 나타내는 角이 된다고 하는 三數의 이치, 즉 하나의 이치가 셋을 관통한다는 철학이 내재되어 있는 이 의복에 표현된 우리 문화의 철학적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권오호(1997), *우리문화와 음양오행*, 서울: 교보문고.
 금기숙(1990), "조선복식미의 탐구", 복식 3권 14호.
 김성련(2000), *피복재료학*, 서울: 교문사.
 김영자(1997), *패션디자인*, 서울: 경춘사.
 민길자(1990), "한국전통문직물의 조직에 대한고찰 I", 국민대 교육논총, 10권 1호.

29) 조하선, *Op cit.*, p.57.

30) 蓋天數終於九 地數繙於十: 대개 하늘의 수는 9에서 끝나고 땅의 수는 10에서 끝난다. 정재승, 천부경의 비밀과 백두산족 문화 (서울: 정신세계사, 1989), p.237.

31) 정재승, *Ibid.*, p.237.

- 민길자(1995), "한국전통문직물의 조직에 대한고찰 IV", 국민대학교 생활환경연구소, 제1집.
- 朴圭鉉의 편역(1984), 조경론, 서울: 技文堂.
- 朴容淑(1976), 한국고대미술사론, 서울: 一志社.
- 백영자(1998),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 정옥임(1995), 의복공학, 서울: 수확사.
- 정옥임(2001), "한복바지구성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권 9호.
- 정종하 역(1976), 울곡집, 서울: 대양서적.
- 정재승 엮음(1989),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문화, 서울: 정신세계사.
- 정혜경, 권영숙(1991), "易을 통하여 본 深衣의 상징성", 복식 4권 16호.
- 중앙일보사(1985), 중앙대백과.
- 조암(1994), 인간공학실험, 서울: 녹원출판사.
- 조하선(2000), 빼일 벗은 권부경, 서울: 물병자리.
- 조르주나타프 저, 김정란 역(1987), 상징, 기호, 표식, 서울: 열화당.
- 安原田(1994), 동양철학 이렇게 한다, 서울: 대원출판사.
- 呂洞賓(1992), 태을 금화종지, 서울: 여강출판사.
- 이석호 역(1996), 淮南子, 서울: 율유문화사, 天文訓.
- 李順子(1990), "남자 한복바지 원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15호.
- 이화연의 역(1996), 복식의 시각디자인, 서울: 경춘사.
- 채금석(1995),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 프리츠포카프라저, 이성범, 김용정역(1992), 현대물리학의 동양사상, 서울: 범양출판사.
- 한동석(2001), 우주의 변화원리, 서울: 대원출판사.
- 한명숙 옮김(1996), 유행과 문자의상체계, 서울, 경춘사.
- Henny Herald Hansen (1950), *Mongol Costume*.